

서유럽 네트워크 도시, 란트스타트

오용준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네트워크 도시란 2개나 그 이상의 독립적인 도시들이 기능상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고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에 의해 집적 경제를 달성하는 경우를 이른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도시는 다중심적인 도시집적체로서 단일 중심을 가진 대도시권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경제는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네덜란드의 란트스타트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이번 서유럽 도시국가 소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도시와의 상생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를 위하여 서유럽의 네트워크 도시를 답사한 내용 중 일부인 란트스타트(Randstad)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출장은 2007년 10월 14일부터 7박 8일 동안 란트스타트의 광역행정체계 정책과 란트스타트의 지역경제발전전략(Economic Strategy Randstad), 지방경제전략(Economic Strategy Province & Local)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방문지역은 4개국 15개 도시로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유트레히트, 알메르, 헤이그, 델프트, 로테르담), 벨기에(안트베르펜, 브뤼헤, 뤼벵, 겐트, 브뤼셀),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 독일(트리에, 코블란츠, 마인츠, 프랑크푸르트)이다.

네트워크 도시

종래의 도시 간 관계나 도시체계에 대한 접근이 주로 중심지이론에 의존해왔다면, 최근에는 인근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네트워크 도시이론이 소개되고 있다.

네트워크 도시이론은 인근 도시들이 경쟁적 관계를 넘어서 연관 산업 분야에 특화하거나 분업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경쟁력을 구축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중심지형 도시체계가 인근 도시 간의 경쟁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네트워크 도시들은 거래비용의 절감과 협력구조를 통해 상호작용적 성장의 시너지를 얻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네트워크 도시의 대표 사례로서는 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유폴레히트-헤이그-로테르담, ② 벨기에 브뤼셀-루벤-겐트, ③ 독일 본-뒤셀도르프-콜른, ④ 독일 프랑크푸르트-마인즈-기센 등이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의 도시국가 이번 출장지역들이다.

란트스타트(Randstad)

란트스타트는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적인 네트워크 도시이다. 그것은 델타메트로폴리스(Deltametropolis)라고도 불리며 다수의 도시들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연계된 전형적인 네트워크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란트스타트 지역의 지리적 특징은 네덜란드의 수도권으로서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유폴레히트 등 10개 이상의 주요 도시들이 중앙 녹지대인 그린하트(Green Heart)를 반경 약 50-60km의 환상형으로 에워싸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개념인 그린하트는 국립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이자 휴양지대이다.

이 지역은 수변지구를 포함하여 관광·휴양기능과 함께 전문적인 농업기능을 수행한다. 근래에 많은 변화와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데, 인프라와 상업용지의 부족을 겪는 한편으로 점차 농업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는 그린하트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 용지로의 전용을 원하고 있고, 도시지역이 점차 팽창하면서 개발압력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정부와 지역계획가들은 과거의 무계획적인 도시 개발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여 도시개발에 매우 신중해졌고 주민들도 새로운 주거단지, 고층빌딩, 고속도로 건설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 1〉 Randstad의 주요 도시권 및 기능 분담

도 시 권	인구(2000년)	주 요 특 징
Rotterdam	1,125,000명	항만, 국제무역, 지역공항, 산업, 기업본사, 대학도시
Amsterdam	1,000,000명	관광, 국제무역, 예술, 대학도시, 레저, 은행, 기업본사, 항만
Hague	875,000명	행정 및 정치중심지, 기업본사, 컨설팅, 관광
Utrecht	600,000명	도로 및 철도허브, 대학도시, 무역, 컨설팅, 종교중심지

자료: Han Lorzing, 2002

란트스타트의 인구규모는 도시지역이 약 500만 명이고 주변 교외지역까지 합치면 약 600만 명에 달하며, 2000년 현재 란트스타트의 전국대비 인구 비중은 36.8%이다. 란트스타트의 주요 도시권 인구는 로테르담 112만 명, 암스테르담 100만 명, 헤이그 87만명, 유트레히트 60만 명 등의 순이다.

란트스타트의 주요 산업으로는 원예산업과 화훼, 물류시스템(Logistics)과 수송, 건축디자인, 석유화학, 유통, 마케팅과 광고, 정보통신, 미디어, 철강, 무역, 식품, 관광, 회계, 수자원공학(Water engineering)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 네덜란드 Randstad 지역의 도시 분포

란트스타트는 광역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지역의회와 집행위원회가 있으며 지역의회는 각 지방정부와 여타 기관들의 수평적인 상호협력에 의해 운영된다. 지역정부의 정책결정에는 각 도시의 시정부, 지방의회, 공사, 상공단체, 시민단체, 개인 등이 고루 참여한다. 정책결정과정은 대체로 상향적, 비공식적, 수평적이고 상호 간의 조정을 통해 수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표 2〉 란트스타트의 산업현황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 분야			발전 수준
온실 원예농업과 화훼	물류와 교통	건축디자인	· 세계적 수준
식유화학	유럽유통중심지	마케팅·광고	· 규모의 경제 및 도약단계
화학과 제약	콜센터	신·구 미디어	· 새로운 경쟁에 진입 단계
철강	무역	정보통신	· 혁신상승/기술개발단계
식품산업	유럽본사	관광	· 클러스터 단계
휴양	금융	회의	· 지리적 집중단계
수자원공학	사업서비스	정부단체와 NGO	· 입지적 중요성 증가단계

자료: 권오혁, 네트워크 도시의 연계구조와 발전전략, 공간과 사회, 2006.

란트스타트(Randstad)의 시사점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도시간 특색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근 도시들이 공간적 군집과 연계망을 형성해온 도시 네트워크로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긴밀한 연계망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네트워크 도시는 기존의 물리적 확산과 연담화에서 벗어나 인근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을 공간적으로 연계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적인 산업과 자본 유인정책이 필요하며, 광역권의 공동 발전 전략과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특화 전략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지식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인근 도시간의 분업 및 협력관계는 기능적 의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 경제 및 유연적 산업체제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적 지식 산업전문화와 광역적 산업클러스터 형성과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도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네덜란드 란트스타트 시청 방문